

Shall we dance?

총무로에 춤바람(?)

● 2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연령층 다양

인쇄인들이 모여 있는 총무로에 춤바람 분다는 소식이 솔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가 총무로에 직접 취재를 나가본 결과, 그 춤바람의 진원지는 아그파코리아의 라틴댄스동호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20여 명의 폭넓은 회원층을 확보하고 있는 아그파코리아의 라틴댄스동호회(회장 주정하, 마케팅팀)는 라틴댄스의 열기가 무르익던 지난 3월에 결성됐다.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주중에 한번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모임을 갖는 이 동호회는 시간이 나고 회원간 의기투합만 잘되면 라틴댄스 카페에 들려 수업내용을 반복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공부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고 한다.

마케팅팀의 전폭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 동호회는 회장 주정하씨와 총무 최세용씨가 전부 이 팀 소속이다. 주정하씨가 이 동호회를 결성하기까지는 주위의 관심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주정하씨는 친구와 함께 다른 라틴댄스 동호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라틴댄스에 관심이 있던 직원들이 열화와 같이 호응, "주정하씨가 라틴댄스 동호회를 만들면 정말 몸과 마음을 받쳐 열심히 배워 보겠노라"며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났다고 한다. 더구나 아그파코리아의 독일인 마티아스 아이히호른 사장도 부인과 함께 볼룸댄스를 즐기고 있어 맘으로나마 응원해주는 응원군이 되고 있다고 한다.

● 미혼남성들이여 춤바람에 취해보라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직장 동료들간의 친목도모이다. 150여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기란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부서 사람들만 친분을 갖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러한 동호회 활동은 쉽게 마주치지 못하는 부서 사람들, 예를 들어 영업부·A/S 부문 직원들과 내근직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1주일에 한 번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1주일간 쌓아 둔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린다면 정말 1석 2·3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아그파 라틴댄스동호회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장점이 있다. 특히 미혼남성들에게는.

여성회원이 13명인데 반해 남성회원은 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왕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주정



하씨의 귀뜸이다. 또 아그파코리아 사내에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미혼 남성들은 무조건 라틴댄스동호회에 가입하라”는 말이 암암리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 개인교습 받는 회원들도 있어

주정하씨는 이전에 일반 교습소에 다닐 때는 모르는 사람과 춤을 춰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낮을 가리는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회사 동호회 활동은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장점이 있어 낮가림이 있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도 쉽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지원부의 윤기호씨는 가장 열성적인 회원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그 학습효과도 매우 우수하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은 키가 190cm에 달하는 윤기호씨가 30cm 이상 차이 나는 관리부의 장석란씨와 커플이 돼 춤을 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꺼꾸리와 장다리 콤피를 이루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기술지원부 조현일씨와 관리본부의 박은애씨 등은 라틴댄스에 너무나 심취해 따로 개인교습을 받는 등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미 수준급의 실력에 올랐다고 한다.

● 중·고급반, 초급반 나눠서 운영했으면

동호회 인원이 10명이 넘으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라틴댄스동호회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당당히 보조금을 받고 있다.

동호회원들의 참석률과 호응도 너무 좋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불균형한 성비만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로 현재는 불균형한 성비 때문에 교습할 때도 학원에서 남성도우미를 지원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학습효과가 좋은 회원들과 그렇지 못한 회원들과의 실력차이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회원들의 실력이 지속 향상되면 신입회원들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정하씨는 앞으로는 중·고급반과 초급반을 따로 구성해 운영할 복안을 갖고 있다. 만약에 따로 나뉘어 운영된다면 먼저 시작한 중·고급반의 능숙한 회원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회원에게 대한 강습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사 라틴댄스동호회와도 기회가 된다면 서슴없이 교류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주정하씨는 라틴댄스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원래 라틴댄스는 정열이 넘치는 라틴민족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그대로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하나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틴댄스 분위기를 느끼고, 즐기보다 춤의 기교를 배우는 데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게 기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댄스를 즐기는데는 소홀해지고 수업으로 여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갑준 기자〉